

셋째아 출산 권장 하지만 둘째아도 ‘주춤’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불구 감소 추세 부모들 “둘째도 버거운데 셋째 낳겠나”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출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출산정책을 담당하는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수년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으나 내리막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셋째아 출산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0년 광주시를 통틀어 셋째아 이상 신생아는 1850명이었으나 지난 2014년 1502명으로 감소했다. 시와 자치구가 출산축하금 등 장려책을 펴고 있음에도 이런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셋째아 이상 출산하면 축하금 5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다. 5개 구청에서도 적게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같은 명목의 축하금을 주기 때문에 최고 7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 중복지원을 허용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셋째아 출산장려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둘째를 낳는 가정마저 줄거나 정체돼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12년 광주시 둘째 아이 출생수는 565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3년 4980명, 2014년 4977명으로 주춤하고 있

다.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를 간파한 광주시는 둘째 아이를 낳을 때도 10만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주고 있다.

전국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서도 광주시의 출생아수는 많은 편이 아니다. 인구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대전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만3000명~1만4000명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광주는 지난 2012년 1만439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1만2792명으로 주저앉았다.

금전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나마 시가 재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출산을 높이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에 지원하는 현금예산은

2500만원에 불과하다. 기업, 시민단체, 정관계 인사들로 출산육아지원협의회를 운영하라는 명목이다.

출산담당 공무원들은 이같은 홍보위주의 출산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으로 사회전체를 육아와 출산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자치구의 한 출산정책 담당자는 “아이 낳으라는 홍보정책도, 금전적인 지원책도 한계가 있는 만큼 출산, 교육, 취업 등 사회 전반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관광숙박시설 확충 210억 지원

1% 저리융자 3·9월 신청

전남도가 다양하고 저렴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21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6일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관광 숙박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3월과 9월 2회에 걸쳐 1개월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융자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우수 모텔 가운데 개방형 안대네스크 설치, 트윈침대 설치 등 호텔급 개보수를 원하는 업체와 노후 숙박업소를 젊은 배낭여행객이 선호하는 호스텔로 변경하려는 업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 추진한다. 대출금리는 1%로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업체별 최대 융자 규모는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이다. 대출 취급은행은 광주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우리은행이고, 상환 조건은 신축의 경우 최대 4년, 증축은 3년, 개보수는 2년, 개보수 3년, 증축 4년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 디자인박람회서 ‘블랙이글스’ 에어쇼

박람회 기간 5월 15일 펼쳐

세계 최정상급인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오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막하는 세계환경디자인박람회 상공에서 에어쇼를 갖기로 했다.

세계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는 6일 “공군 ‘블랙이글스’가 박람회 기간인 5월 15일 오전 11시부터 25분간 박람회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친다”고 밝혔다.

올 해 블랙이글스는 총 40개 행사를 찾아 에어쇼를 펼치며, 군 관련행사를 제외한 10개 민간행사 가운데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2016 세계환경디자인박람회 상공에서 쇼를 펼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블랙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B’로 무장하고 조종사들의 조직적인 팀워크와 고도의 비행 기량을 선보이는 세계 최정상급의 우리나라 공군 특수비행팀이다. 공연 중에는 5색의 아름다운 색을 내뿜으며 불감을 품듯 파란 하늘을 지나가는 8대의 전투기 에어쇼가 압권이다. 2016 세계환경디자인박람회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나주 소재 전남농업기술원과 광주전남혁신도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7개의 주제별 전시관을 비롯해 ▲퍼펙트 판타지 뮤지컬 ▲난타 ▲점프 ▲비바 ▲판타스틱 ▲팝송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이들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생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법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장로 불법 주차 단속 잠시 주춤했던 기초철서 위반이 총선 정국 등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6일 광주 동구 중장로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교통경찰관들이 단속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제주 해저터널 국책사업에 반영을”

이낙연지사, 유일호 부총리 면담서 ... 한우 기반사육 확대 등도 요청

이낙연 전남지사가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가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추진에 힘을 쏟으면서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6일 “이 지사가 지난 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면담하고 목포~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 등 주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목포~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줄 것을 건넸다.

이 지사는 “목포~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2025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니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인들의 식생활이 변해 2015

년 1900만 마리였던 중국 내 소고기 소비량이 10년 후에는 5000만 마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에서의 한우 사육 수를 늘려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확정, 남해안 철도(목포~보성)의 계획연도(2020년) 내 완공을 위한 사업비 적국 반영, 신안 도초~하의 간과 여수 화태~백야 간 예비타당성조사 및 새천년고속도로 등 연륙·연도교 건설,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림시설 건설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목포~제주 간 해저고속철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남해안철도 건설사업은 올해라도 여유 재원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연륙·연도교 사업과 한우 사육기반 확대 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오는 8일에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 주요 국장을 면담, 2017년 국고현안사업 확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우기종 전라남도 정부부지사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 등 주요 SOC 사업비를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이우스**의 구성원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후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경력 및 경력

- 광주혁신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88학번)
- 제43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33기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형사단독)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영장정당)
- 전라남도 무안군 선거관리위원장

변호사 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번에 **광주 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고영석 변호사**를 구성원변호사로, **강은백 변호사**(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와 **한아름 변호사**(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소속 변호사로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생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법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오세욱

변호사 임선숙, 서애련, 이병주, 강성두, 김정호, 강부원, 이건호

변호사 고영석 올림

· 업무개시: 2016. 2. 29. · 개업장소: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 빌딩
· 개업소년: 2016. 3. 10. 17:00 · 대표전화: 062)233-1600, 팩스: 062)225-7800

사원모집

(주)나라판넬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제품, 판매조직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마인드를 기본으로 (주)나라판넬의 조직 문화를 느끼며 함께 성장할수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분 및 자격요건					
근무지	모집부분	인원	자격요건 및 업무	제출서류	
광주영업소	관리부	남	0명	총괄관리자	* 경력사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여	0명	사무보조	
	영업부	남	00명	국내영업 유경험자	
		남	00명	건축영업 유경험자	
순천본사	관리부	여	0명	판매관리 및 사무보조	* 공통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남	0명	공무, CAD가능자	
	영업부	남	0명	국내영업 유경험자	
	생산부	남	0명	단순제조원	
		남	0명	산업기능요원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 전형절차: 서류전형 및 면접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접수기간 및 방법

- 마 감 일: 2016년 3월 15일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전남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31 (주)나라케미칼)
- 문의사항: (주)나라판넬 관리부 061)727-8058 (주)나라케미칼 관리부 061)381-8058

(주)나라판넬 (주)이오판넬 (주)나라 T.L.B (주)나라케미칼

광주광역시남구 공고 제 2016 - 235호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공고

1.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의거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오니,
2.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의견 제출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면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게재를 생략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2016년 3월 7일

광주광역시 남구 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다. 면적: 485,887㎡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서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에 비치)
나. 공람기간: 2016. 3. 7 ~ 2016. 3. 29, 09:00~18:00(공휴일 제외, 20일간)
다. 공람장소: 남구청(도시재생추진단), 대촌동주민센터, 서구청(녹색환경과), 서창동주민센터
3.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가. 의견제출 기간: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16.04.05. 까지)
나.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4. 설명회 개최
가. 일시·장소: 2016. 3.16.(수) 14:00 대촌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나. 설명내용: 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설명
5.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062-600-6735), 남구청 도시재생추진단(062-607-3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